

# 목포대 “해양산업 명문 도약” 광주보건대 “보건의로 인력 양성”

지역대학, 글로벌대학 희비 엇갈려  
목포대 “그린에너지산업 리딩 목표”  
보건대 “유일 ‘초광역 연합체’ 주효”  
전남대·동신대 “탈락 원인 분석·보완”

정부가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 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국립목포대학교와 광주보건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양 대학은 크게 환호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 계획서 이행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지정에서 탈락한 전남대학교와 동신대학교 연합(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은 원인 분석에 들어갔으며, 내년 재도전의 의사를 내비쳤다. 28일 글로벌대학위원회의 ‘2024년도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광주보건대, 목포대 등 각 1곳씩 본지정을 통과했다.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함께 ‘한달 빛 글로벌 보건 연합대학’을 구성한 광주보건대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보건대 관계자는 “글로벌대학 발표 이후 구성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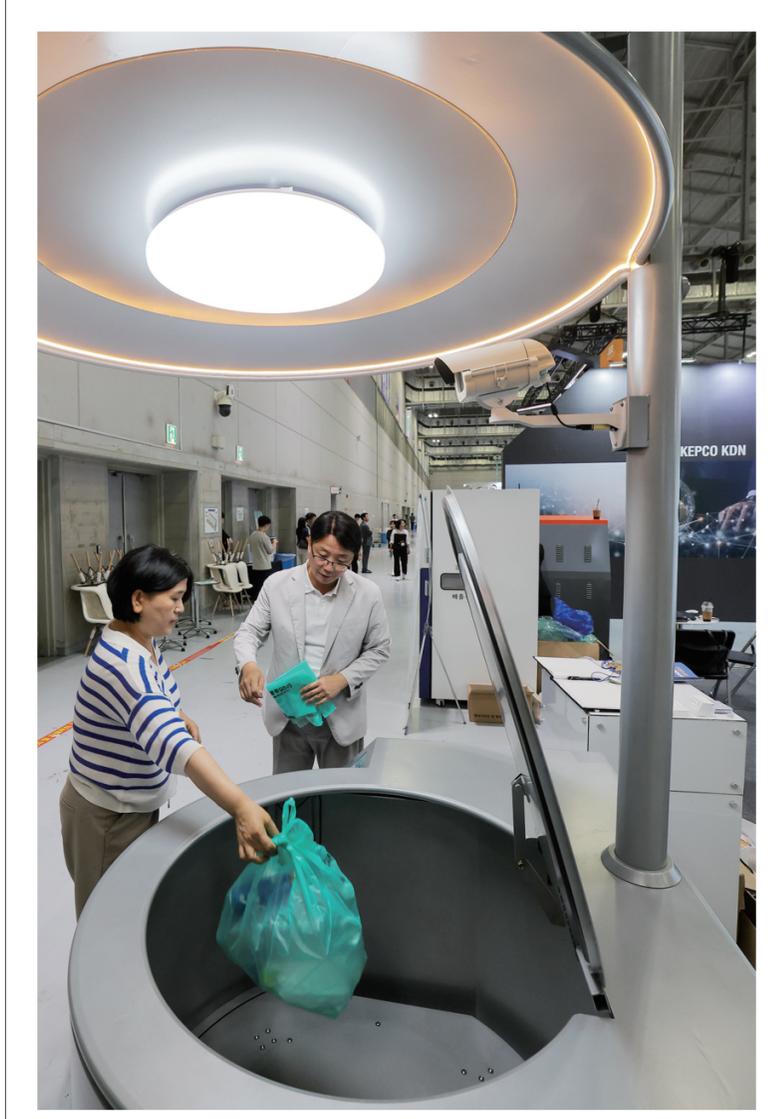
고 있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광주보건대 측은 유일 ‘초광역’ 연합체라는 점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보건의로 분야의 사회적 중요성 등이 작용해 글로벌대학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광주보건대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연합 유형을 활용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다른 연합은 경남, 전남 등 각 지역 내 연합을 만들었다. 광역시 단위의 연합을 구성한 곳은 우리밖에 없을 거다. ‘초광역’ 연합이라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대 증원 등 보건의로 분야 이슈로 인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보건의로 전문 인력양성의 제1전문대학’이라는 모델을 제시한 부분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며 “보건의로 분야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표준화로써 해외 진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5년 동안 각종 사업과 교육에 충실히 하며 지속가

능한 대학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다짐했다. 목포대 역시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으로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목포대는 지난 4월 예비지정 이후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목포대관계자는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자·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그린 해양산업 명문 대학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산업을 리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와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그린 해양산업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는 끝내 최종 관문을 뚫지 못했다. 거점 국립 대학인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던 전남대는 ‘2년 연속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남대는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뒤 재도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와 당혹스

럽다”며 “지난해 ‘사업 개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 나주·고흥 특화 캠퍼스 신설 등 혁신성도 보완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를 내세워 예비지정을 통과했던 동신대 연합 역시 ‘최종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동

신대 관계자는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확 인하고, 첫발을 내디딘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9월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9월 중순께 최종 명단을 확정 발표한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inilbo.com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 개막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이 2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AI 종량제 봉투 수거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AI 수거시스템은 종량제 봉투 판별 및 불법투기 방지, 지점별 쓰레기 배출량 데이터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건호 기자

## 전남도, 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시동’

내일까지 경기장 현장실사  
단계별·맞춤형 홍보 추진도  
전남도가 전국 2만여 생활체육인이 참가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에 시도를 걸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25년 4월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대회 기준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등 총 5개 종별에서 선수·임원 등 2만여 명이 참가한다. 17개 시·도에서 모여든 선수는 그라운드 골프, 수영, 씨름 등 총 41개 종

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과 올해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도 세밀히 준비해 3개년 전국단위 종합 스포츠대회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다. 대축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은 생활체육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해 전남 생활체육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대회가 진행될 경기장 배정과 개보수를 위한 현장실사를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성공 개최의 밑바탕인 경기장 시설물을 완벽히 준비해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서다. 목포종합경기장, 전남도청 등에 대회에 맞춰 디데이 표시기를 설치해 도민 사전 홍보에도 나섰다. 향후 누리집 운영, 주요역 전광판 홍보, 꽃탑 설치 등 단계별·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전, 관광·문화, 숙박·음식, 교통·주차, 의료·구급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사업계획 수립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지난 2년간의 체전 경험을 바탕으로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도 반드시 성공 개최하겠다”며 “도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완벽한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곱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